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지 향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음악 관련 계발활동 실태 분석연구

- 서울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지 은

음악 관련 계발활동 실태 분석연구

- 서울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

오 지 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지 은

인 준 서

김지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음악 관련 계발활동 실태 분석연구

- 서울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

김 지 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오 지 향)

본 논문에서는 교과 중심 교육이 간과하고 있는 신체·정서적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계발활동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시행중인 음악 관련 계발활동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음악 관련 계발활동의 운영 실태와 지도 교사의 전문성, 실제 지도상의 중점사항, 음악 관련 계발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정도에 관한 네 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설문문을 작성하여, 서울지역 음악전공교사 중 음악 관련 계발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73명의 설문 응답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음악 관련 계발활동 지도 교사 대부분이 계발활동의 의의와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담당하고 있는 계발활동 분야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 시설 및 교구와 같은 환경요건,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 등으로 계발활동이 본래 취지대로 행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이를 개선하여 더욱 효과적인 계발활동을 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자는 지역 내 학교 간 연계 운영, 전문 강사 제도 도입,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자율적 운영, 지역 시설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계발활동이 교과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신체·정서적 기능을 책임지고, 음악 관련 계발활동 참여를 통한 음악적 생활화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 의식 개선 문제이다. 현재 학교 현장이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계발활동을 형식적 활동으로만 여기는 학교 풍토의 문제는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계발활동이 교과학습과 더불어 비중 있는 학교 활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음악분야를 비롯한 여러 교과에서 계발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많이 행해져, 계발활동의 본래 취지인 학생들의 신체·정서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토대로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무엇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더욱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 교사와 교육 행정 담당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주지하는 바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주제 및 방법 -----	4
1) 연구문제 -----	4
2) 연구방법 -----	5
3. 연구 범위 및 제한점 -----	5
II. 이론적 배경 -----	6
1. 특별활동 -----	6
1) 특별활동의 개념과 의의 -----	6
2)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본 특별활동의 의의와 중점 사항	9
2. 계발활동 -----	14
1) 계발활동의 특성과 의의 -----	14
2) 계발활동의 조직과 운영 -----	15
3. 음악 관련 계발활동 -----	18
1) 음악교육의 당위성 -----	18
2) 음악 관련 계발활동 동향 -----	20
4. 선행연구 고찰 -----	21
III. 음악 관련 계발활동 실태 조사 분석 -----	23
1. 조사 방법 및 도구 -----	23
2. 자료 분석 및 결과 -----	24
1) 조사대상 교사 및 계발활동 반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	24
2) 음악 관련 계발활동 실태 조사 분석 -----	27
IV. 결론 및 제언 -----	60

참 고 문 헌 -----	65
ABSTRACT (영문초록) -----	67
부록 (설문지) -----	69

표 목 차

[표 1] 교과학습과 특별활동의 가치 비교-----	9
[표 2] 특별활동 영역별 소영역 활동 내용-----	11
[표 3] 특별 활동 시간 배당 및 운영에 관한 지침-----	12
[표 4] 계발활동 소영역별 활동내용 -----	17
[표 5] 계발활동 평가 중점사항 -----	18
[표 6] 조사 유형별 설문 응답비율 -----	23
[표 7] 연구문제별 설문지 내용요소 -----	24
[표 8] 조사대상 교사 인적 자료 -----	25
[표 9] 음악관련 계발활동반 개설 현황 -----	26
[표 10] 현재 계발활동반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인원수 -----	28
[표 11] 계발활동반 참여 인원수에 대한 지도교사 의견 -----	29
[표 12] 계발활동 부서의 학생 인원 조직 방법-----	30
[표 13] 현재 운영방법과 교사의견 비교-----	32
[표 14] 계발활동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시설의 준비도 -----	34
[표 15]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져야 할 자료 및 시설 -----	35
[표 16] 계발활동반이 참여하고 있는 교내·외 행사 -----	36
[표 17] 계발활동반 지도를 맡게 된 동기-----	38
[표 18]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 자가 진단-----	39
[표 19] 계발활동 지도 교사의 지도력 향상 방안-----	40
[표 20] 계발활동반의 외부 전문 강사 초빙 여부 -----	42
[표 21] 외부 전문 강사 초빙에 관한 지도 교사의 의견 -----	43
[표 22] 계발활동 지도상의 목표 -----	45
[표 23] 지도교사의 학습 지도안 작성 및 활용 -----	45
[표 24] 계발활동 계획에서 교사와 학생의 비중 -----	47
[표 25] 학생 수준에 따른 개별지도 여부 -----	48
[표 26]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49

[표 27] 음악 관련 계발활동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 -----	51
[표 28] 계발활동반 학생들의 참여 태도 -----	52
[표 29] 계발활동 평가 중점사항 -----	53
[표 30] 계발활동 평가 상 문제점 -----	54
[표 31] 계발활동을 통한 학생 자아실현의 기여도 -----	56
[표 32] 음악 관련 계발활동반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57
[표 33] 계발활동의 의의 -----	59

그 립 목 차

[그림 1] 현재 계발활동반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인원수 -----	28
[그림 2] 계발활동반 참여 인원수에 대한 지도교사 의견 -----	29
[그림 3] 계발활동 부서의 학생 인원 조직 방법 -----	31
[그림 4] 현재 운영방법과 교사 의견 비교 -----	32
[그림 5] 계발활동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시설의 준비도 -----	34
[그림 6]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져야 할 자료 및 시설 -----	35
[그림 7] 계발활동반이 참여하고 있는 교내·외 행사 -----	37
[그림 8] 계발활동반 지도를 맡게 된 동기-----	38
[그림 9]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 자가 진단-----	39
[그림 10] 계발활동 지도 교사의 지도력 향상 방안-----	41
[그림 11] 계발활동반의 외부 전문 강사 초빙 여부-----	42
[그림 12] 외부 전문 강사 초빙에 관한 지도 교사의 의견-----	43
[그림 13] 계발활동 지도상의 목표-----	45
[그림 14] 지도교사의 학습 지도안 작성 및 활용-----	46
[그림 15] 계발활동 계획에서 교사와 학생의 비중-----	47
[그림 16] 학생 수준에 따른 개별지도 여부-----	48
[그림 17]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50
[그림 18] 음악 관련 계발 활동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	51
[그림 19] 계발활동반 학생들의 참여 태도-----	52
[그림 20] 계발활동 평가 중점사항-----	54
[그림 21] 계발활동 평가 상 문제점-----	55
[그림 22] 계발활동을 통한 학생 자아실현의 기여도 -----	56
[그림 23] 음악관련 계발활동반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57
[그림 24] 계발활동의 의의-----	5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바람직한 인간을 키워 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어떠한 것일까? 세계화·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창의적 안목을 지닌,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한 다면적 인간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이는 예부터 강조되어 온 지성과 감성, 덕성을 모두 소유한 전인적 인간(Whole person)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전인교육은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 하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전인적 성장’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념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¹⁾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전인교육의 필요성은 제 4차 교육과정에서 그 시작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된 현재까지도 ‘전인교육’은 공교육의 근본 목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위주교육이 학교교육풍토를 점령하면서, 사실상 주요교과를 제외한 정서와 도덕, 신체를 강조한 교과 영역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업 방식 또한 많은 지식 전달을 위한 교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학생을 피동적 객체로 인식함으로 학생들의 주체적 사고와 창의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단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이 아닌,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도덕적·정신적·신체적 발달의 조화를 실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입시에 필요한 교육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문화 경

1) 교육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별책18호], p.2.

험을 제공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별활동의 활성화이다.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교과 수업은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구상함에 있어 활동적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입시 교육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교실을 벗어나 행해지는 특별활동은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서 제공받지 못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 교육과정을 활동 유형에 따라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각각의 활동들은 집단 활동과 더불어 개인의 개성·자율성·창의성을 고양할 수 있는 활동을 지향한다. 제 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에서는 목표를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특별활동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²⁾

이 중 제 6차 교육과정까지 클럽활동(CA)으로 불리던 계발활동은 흥미, 취미,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며 효율적인 여가 활용의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³⁾ 따라서 학생들은 계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과 수업에서 충족되지 못하였던 신체, 정서 활동을 더욱 심도 있게 경험하고, 나아가 자신의 잠재능력 계발과 효율적 여가 활동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²⁾ 교육부, 전계서, p.32.

³⁾ 전신애, ‘음악관련 계발활동의 실태조사 연구: 청주시 소재 중학교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2.

특히, 음악관련 계발활동은 교과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적 경험을 제공하고, 더불어 사회 참여에 폭넓은 시각과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 현재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 음악과 정규 수업시간은 주당 2시수로 학생들이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음악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해, 음악 교사가 수업을 구상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발활동은 교과 수업으로는 부족한 음악 활동을 보충하여 학생들의 폭넓은 음악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음악과의 성격을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기초적인 음악 개념을 바탕으로 심화된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음악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에 대한 애호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⁴⁾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음악 관련 계발활동은 학생들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험 하고, 나아가 정서 함양과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가창·기악·창작·감상의 다양한 음악활동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풍부한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고, 잠재적인 음악적 능력을 계발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음악을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다.

즉, 계발활동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학생들의 음악적 생활화이다. 학생들은 계발활동에서 배운 음악활동을 바탕으로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음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을 더욱 풍부하게 가꿔 나갈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개인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동시에 공동체 활동 속에서 함양 하게 되는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게 된다. 더불어, 매스미디어의 발달 속에서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는 음악 문화를 주체적 안목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시각과 음악문화를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

4)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p.1.

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음악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학생들의 음악적 생활화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음악 관련 계발활동이 과연 근본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운영상의 실제에 있어서 교육 여건 혹은 지도 교사의 전문성이 계발활동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으며, 더불어 학생들이 계발활동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것이 그들의 음악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더 나아가 현재의 계발활동이 갖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계발활동이 학생들의 음악적 사회화 기능에 효율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 음악관련 계발 활동의 운영 실태 분석함을 토대로 계발 활동의 근본 취지에 더욱 적합한 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연구 문제를 토대로 하여 진행되었다.

- ① 음악관련 계발활동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 ② 음악관련 계발활동 지도교사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 ③ 음악관련 계발활동 지도상의 중점사항은 무엇인가?
- ④ 음악관련 계발활동에 대한 인식정도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연구내용의 이론적 근거는 「제7차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있으며, 계발활동 실태를 분석한 선행 연구 논문⁵⁾의 연구 문제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재정리하여 연구 문제를 선정·조직하였다. 연구자는 73명의 서울지역 음악전공교사가 작성한 설문용 토대로 이들이 현재 지도하고 있는 음악관련 계발활동에 관한 견해를 분석해 보았다. 설문 대상을 음악전공교사로 한정된 것은 음악관련 계발활동이 그 특성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설문은 Micro Office Excel 2007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3. 연구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중학교에서 현재 음악관련 계발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음악전공 교사 73명에 한정된 응답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기에, 이를 우리나라의 일반적 현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학교 및 지역 환경, 교과과정 및 기타 계발활동 운영에 대한 분석을 배제한 채 음악관련 계발활동 분야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에서 외부 환경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계발활동의 효과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의 계발활동은 방과 후 활동을 제외한 교육과정 특별활동 내 시간에 배정된 계발활동으로 제한함을 밝힌다.

5) 강창열, '경기도 초등학교 음악 교육의 실태', 「음악교육연구」 Vol.23 No.1, (서울; 한국음악교육학회, 2002), pp.1-19; 김여진, '초등학교 계발 활동에서 음악활동에 관한 실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오세하, '고등학교 클럽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울산광역시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석사학위논문, 2000; 이윤정, '음악과와 관련된 클럽활동의 운영 실태 연구 : 대전광역시 중학교의 클럽활동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전신애, 전게서.

II. 이론적 배경

1. 특별활동

1) 특별활동의 개념과 의의

특별활동은 학교 교육 본래 목적인 전인 교육의 실현과 학습자의 필요에 부응하여 생겨난 ‘교과 외의 교육 활동’이다. 교과가 학문적, 인지적 영역을 담당한다면, 특별활동은 학습자의 인간적, 사회적 필요와 요구로부터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별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하고, 한편 집단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 민주 시민의 자질을 형성 할 수 있다.⁶⁾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활동이란 용어는 1954년 문교부령 제 35호로 공포된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전, 즉 1945년부터 1954년까지는 교과과정을 교육과정의 개념으로 보아 특별활동을 하나의 과외활동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1954년도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서 종래 사용해 오던 ‘교과 과정’이라는 용어를 ‘교육과정’으로 바꾸고, ‘과외활동’이라는 용어를 ‘특별 활동’으로 개정하면서 공식적인 교육과정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⁷⁾

특별활동의 성격을 처음으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제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이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학교교육에서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니면서 전인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과이외의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 7차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 또한 제 6차에서 밝힌 성격을 거의

6) 교육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p.23.

7)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 (서울: 서울 인쇄 공업 협동조합, 1998), 이경환 외, ‘특별 활동’, pp.210-213, 재인용, 교육부, 전계서, pp.24-25.

그대로 수용하여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⁸⁾

외국의 경우 대다수의 나라에서 특별활동을 국가수준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나라의 특별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특별 활동에 관한 여러 어휘가 사용되는데, ‘extra curricular activities(과외활동)’와 ‘co-curricular activities(협력 과정 활동)’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다. 교과 활동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의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 활동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은 1968년 이후부터 ‘특별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학교에서 일관성 있게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 특별활동에 해당하는 교육 활동을 ‘단체 활동’이란 용어로 명명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으로 문서화 되어 있지는 않다. 그 밖의 영국, 독일 등 대다수 나라에서 또한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지방정부,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⁹⁾

우리나라에서 명시하는 특별활동 용어를 살펴보면, 1954년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서 특별 활동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목적적인 교육 활동 중에서 교과 활동 또는 교과 과정을 제외한 기타 모든 활동 또는 과정’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정의는 오늘날까지도 특별활동의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과 활동을 제외한 모든 기타 교육 활동이 바로 특별활동이라고 견해이다. 그러나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은 교과 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어 편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경험

8)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특별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pp.198-199.

9) 교육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pp. 24-25.

의 총체'로 보는 광의의 의미와, '교육 내용'만을 보는 협의의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특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개념 정의가 정착되어 있지 못함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활동의 개념 속에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¹⁰⁾

첫째, 특별활동은 교과가 아니며, 따라서 교과 과정이나 학과 과정의 개념에 특별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특별활동은 학교의 책임 하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개되는 과정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과 외 과정'이나 '특별 과정' 또는 '특별 교육과정'이라 칭할 수 있다.

셋째, 특별활동은 교과 외의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주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활동을 조장함에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즉, 특별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 자주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아가 전인적 인간을 형성해 학생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은 특별활동의 독자적인 가치를 교과학습과 비교하여 [표 1]과 같이 규정하였다.¹¹⁾

10) 고희영, '지역 내 인접학교간의 연합을 통한 음악분야 계발활동 활성화 방안'(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6-7.

11)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인간교육의 발전적 탐색」(서울: 동원문화사, 1988), p.15.

[표 1] 교과학습과 특별활동의 가치 비교

<p>가, 교과학습이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활동이 지배적임에 대하여 특별활동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집단 활동임을 특징으로 한다.</p> <p>나, 교과학습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교사의 사전계획에 의하여 학습이 통제됨에 반해서, 특별 활동은 교사와 학생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같이 추구할 활동의 내용을 공동으로 계획한다.</p> <p>다, 교과내용의 조직은 체계적으로 배열된 지식이나 기능으로 성립됨에 비하여, 특별활동은 언제나 생활 실천의 흐름 속에서 공동 생활의 건설과 추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p> <p>라, 특별활동은 정치나 사회문화의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교과 내용이 전통적으로 고정화된 경향을 띠고 있음에 대비되는 것이다.</p>

2) 제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본 특별활동의 의의와 중점사항

가. 특별 활동의 의의

제7차 교육 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 (1)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2)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3)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4) 지역 및 학교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들고 있다.¹²⁾

교실-교과서-지식 전달 중심의 전통적 학교 교육은 풍부한 인간성과 창

¹²⁾ 교육부, 「제7차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 (교육부 유인물, 1997), p.5.

의성을 지닌 인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였고, 이는 특별 활동의 의미를 더욱 크게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래의 교과위주 교육에서 간과되었던 학습자의 사회적·인간적 발달영역의 질적 재고가 특별 활동 영역의 비중을 확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 활동을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생의 자아실현, 사회에의 능동적 참여, 창의성·표현력의 신장을 목표로 이전 교육과정 영역에서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나. 운영 중점사항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의 전체 목표를 “다양하고 건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한다.”고 제시하고 있다.¹³⁾ 이러한 방향으로의 제시는 기본체제에서부터, 영역, 내용,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 다음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특별활동 중점사항이다.¹⁴⁾

첫째, 특별활동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영역의 특성화이다. 특별활동 영역을 활동 집단, 장소, 시기, 지도자, 내용 등의 운영 관련 요인을 보다 입체적인 복합 편성·운영으로 다양화, 개성화, 특성화 시켜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대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 따른 내용을 소 영역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다. [표 2]는 특별활동 소영역에 포함되는 활동 내용이다.

13) 교육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p.30.

14) 교육부, 전계서, p.6.

[표 2] 특별활동 영역별 소영역 활동 내용¹⁵⁾

영역	소영역
자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 활동 ▫ 민주 시민 활동 ▫ 역할 분담 활동 ▫ 그 밖의 필요한 활동
적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 상담 활동 ▫ 정체성 확립 활동 ▫ 친교 활동 ▫ 진로 활동 ▫ 그 밖의 필요한 활동
계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문예 활동 ▫ 실습 노작 활동 ▫ 정보 통신 활동 ▫ 그 밖의 필요한 활동 ▫ 보건 체육 활동 ▫ 여가 문화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손 돕기 활동 ▫ 캠페인 활동 ▫ 환경·시설 보전 활동 ▫ 위문 활동 ▫ 자선 구호 활동 ▫ 그 밖의 필요한 활동
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 행사 활동 ▫ 보건 체육 행사 활동 ▫ 안전 구호 활동 ▫ 그 밖의 필요한 활동 ▫ 학예 행사 활동 ▫ 수련 활동 ▫ 교류 활동

둘째, 학생의 집단적, 자주적, 실천적 활동의 강조이다. 학생의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계발 활동, 행사 활동 등의 영역에서도 학생이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등 학생의 자주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강조한다.

셋째, 학생의 인간, 사회, 자연과의 접촉 활동 강화이다. 사회·문화·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생의 건전한 인간성 발달과 주체적 인격 형성

¹⁵⁾ 교육부, 전계서, p.36.

을 위해 수련 활동, 각종 봉사활동, 자연보호 활동, 야영 활동, 자연 체험 활동, 전통 문화 체험 활동, 교류 활동 등이 확대·편성 되었다.

넷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편성·운영을 위한 학교 자율권 확대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특별 활동의 시간 배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표 3]과 같다.

[표 3] 특별 활동 시간 배당 및 운영에 관한 지침¹⁶⁾

-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결정하되, 영역 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 한다.
- 시간(단위) 수가 배정되지 않은 활동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 한다.
- 특별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기준 시간(단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 운영은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된 특별 활동 수업 시간 수는 연간 68 시간으로 단위학교에서 특별활동을 수립할 때에는 각 영역별로 적절한 시간을 배당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도의 시간은 연간 수업 일수 220일에서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 주인 34주(204일)를 제외한 나머지 16일에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정규 특별활동 시간에서 적게 배당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¹⁷⁾ 단위학교는 지역 상황·학교 운영 상황·하위 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특성에 알맞은 특별활동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16) 교육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p.42.

17) 교육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p.43.

교육 내용 또한 학교의 여건과 실정, 교사의 지도 능력,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등을 수렴하여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게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 이전 특별활동이 교사의 계획아래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학생 스스로가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고 평가하여, 협동심과 책임감,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인간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기저로 다양한 평가 방법이 요구된다. 제 7차 특별 활동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평가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¹⁸⁾ (1) 특별 활동은 영역별로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평가하되, 담임교사가 종합한다. (2) 특별 활동의 평가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학생 자기 평가, 상호평가, 관찰, 설문지, 포트폴리오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및 활동 실적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척도를 작성·활용한다. (3) 평가의 결과는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록한다. (4) 특별 활동의 평가는 학생 각자의 성취도나 변화를 진단하는 절대 평가이며, 평성 평가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5) 특별 활동 평가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발달, 변화, 성취를 평가함과 아울러, 학급 또는 학교 차원에서 전체 집단의 성장, 발달, 변화 등도 평가하여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더불어 특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 결과는 해당 학급 또는 학교의 후속 특별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한다.

¹⁸⁾ 교육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p.38.

2. 계발 활동

계발 활동은 [표 2]에 제시한 특별 활동의 5가지 하위 영역중 하나로 이전 교육 과정에서 ‘클럽 활동(CA)’라 불리던 것이 그 내용면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명칭이 변경 된 것이다. 계발활동이 갖는 특성과 의의, 계발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함에 있어 갖추어 져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1) 계발 활동의 특성과 의의

함종규(1989)는 계발활동을 “공통의 흥미나 관심사를 자주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자주적인 개성의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⁹⁾ 클럽 활동의 새로운 명칭인 계발 활동은 바로 공통의 취미나 적성,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나가는 클럽 활동의 내용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계발 활동 목표를 “계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며,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 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의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 ① 흥미, 취미,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움 속에서 삶의 질서를 배우며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 ②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 신장하고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는다.
- ③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한다.

19) 함종규, 「인간형성을 위한 특별활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89), p.242.

20) 교육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pp.30-32.

학생은 계발활동을 통해 교과 학습에서 소홀하였던 전문영역을 다룸으로써 취미와 특기를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자아실현의 토대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 계발활동의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첫째, 실생활과 동떨어지기 쉬운 교과중심교육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학생들의 조화로운 인격형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해 준다.

둘째, 집단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의 의견을 모으고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계발활동은 교과교육만으로는 수행하기 힘든 개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아준다.

넷째, 계발활동은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흥미 있는 활동을 찾아 스스로 거기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초를 닦아준다.

2) 계발 활동의 조직과 운영

함종규(1989)는 계발활동의 계획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²⁾

첫째,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다양하게 운영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함께 운영계획을 작성한다.

넷째, 집단 활동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개선을 도모함과 더불어 독자적인 성과를 높이도록 지도해야 한다.

21) 이상희, '중학교 기악 클럽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재인용, 전신애, 전계서, p.14.

22) 함종규, 전계서, pp. 258-260.

다섯째, 학생 개인 카드를 작성하여 개별지도의 바탕을 마련하고, 활동의 결과는 발표의 기회를 통하여 더욱 의욕을 높이도록 한다.

나아가 교사는 지도 능력과 기술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학생은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것을 계발 활동에서의 기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 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전인 교육의 성격을 더욱 부각하여 계발활동 운영 중점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 중점사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³⁾

- ① 학생의 흥미, 취미, 요구, 적성 및 학교 실정, 지역 특성 등에 알맞은 활동 집단을 조직하고, 모든 학생에게 자세히 안내한다.
- ② 집단의 가입에 있어서는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고, 상담 활동을 통해 집단 선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③ 활동의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과 같은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다.
- ④ 학생 중심의 흥미 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저학년은 취미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 ⑤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지속적, 집중적으로 최대한 신장하기 위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상설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시설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전문가, 강사 등의 초빙에 필요한 경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가 계발활동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활동 내용과 장소, 시간, 조직을 계획해야 한다. [표 4]는 계발 활동 내의 하위영역 활동 예시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다음의 활동

²³⁾ 교육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pp.36-37.

중 각 학교의 실정과 요구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²⁴⁾

[표 4] 계발활동 소영역별 활동내용

소영역	활동내용
학술 문예 활동	문예, 연극, 방송, 음악, 미술, 전통, 예술 외국어, 회화, 과학 탐구 사회 조사 등
보건 체육 활동	육상, 구기, 수영, 체조, 무용, 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등
실습 노작 활동	사육·재배, 조경, 목공예, 제도, 설계, 조리, 수예, 재봉 등
여가 문화 활동	등산, 사진, 독서, 영화, 꽃꽂이, 원예, 기악, 서예, 바둑, 장기 등
정보 통신 활동	컴퓨터 통신, 인터넷, 신문 활용 학습, 국제 이해 활동 등
청소년 단체 활동	소년 소녀단, 청소년 연맹, 적십자, 우주 정보 소년단, 해양 소년단 등
그 밖의 필요한 활동	각 학교별 로 선정

계발활동 운영은 학급, 학년, 학교 단위로 다양하게 구성 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의 계발활동은 학생의 신체변화, 활동량을 고려하여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지도 등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계획·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권고 한다. 계발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계발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목표에 따른 연간 지도 계획과 차시별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계획된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방법과 운영시간 등 편성

²⁴⁾ 교육부, 전개서, p.38.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다. 활동 전개에 있어 계발활동 내용에 대하여 준비와 탐색, 훈련, 정착, 심화, 최종 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평가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교육 목표에 비추어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고, 평가 결과는 해당 학급 또는 학교의 후속 특별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한다.²⁵⁾

[표 5] 계발 활동 평가 중점사항

- | |
|--|
| <p>(1) 학생 자신에 의한 평가, 학생 상호간의 평가를 고려하여 교사가 평가한다.</p> <p>(2) 관찰 기록과 질문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p> <p>(3) 활동 기록,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과 같은 수행 평가의 방법을 활용한다.</p> <p>(4) 각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여 평가 척도를 작성, 활용한다.</p> <p>(5)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및 특별한 활동 실적 등이 골고루 반영되게 한다.</p> <p>(6) 교육 목표의 설정, 평가 장면의 선정, 평가 도구의 제작, 평가의 실시 및 결과 처리,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의 절차를 고려한다. 계발활동의 평가는 형성 평가의 차원에서 학생 각자의 성취도나 변화를 진단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p> |
|--|

3. 음악 관련 계발 활동

1) 음악 교육의 당위성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교육의 목적을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

²⁵⁾ 교육부, 전계서, pp.58-59.

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²⁶⁾라 명시하고 있다. 즉, 음악교육은 학생들에게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와 미적 경험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경험을 넓혀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학교음악교육에 대한 당위적 측면을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²⁷⁾

첫째,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인류 사회는 우수한 음악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음악은 종교 의식, 일과 놀이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음악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간은 음악을 통하여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향유해왔다. 에토스론적 측면에서 보아도, 좋은 음악은 인간의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음악교육은 학생들에게 음악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직접 음악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 본질의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음악적 내용을 바탕으로 삶에서 음악을 향유하고 음악을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음악은 ‘소리’라는 매체를 통하여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음악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함으로써 잠재된 창의성과 음악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하여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음악과 교육은 이러한 창조적 인간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26)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p.2.

27)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5), pp.45-48.

셋째, 사람은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접하게 된다. 학교 음악교육은 학생들이 음악 문화에 대해서 올바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도록 계기를 마련하여 그들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여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다. 나아가 음악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음악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학교음악교육을 통해 매스미디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무분별한 음악문화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족문화 창달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다른 나라의 음악과 함께 향유함으로써 그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더불어 우리 고유의 문화 전통과 정신문화를 체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우리음악을 배움으로 그 특질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계승하여 새로운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악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다른 여러 나라의 음악을 접하면서 학생들은 문화의 다양성과 그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 특질을 이해하게 된다.

2) 음악 관련 계발 활동 방향

제 7차 교육과정은 정규교과 과정과 특별활동 과정으로 나뉘어있다. 중학교 음악교육은 연 4 시수의 정규교과과정인 ‘음악’교과 수업과 교과 외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특별활동에서의 음악교육은 그 성격상 계발활동에 집중되어 있어 음악관련 계발활동은 교과수업과 더불어 학교음악교육의 큰 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악관련 계발활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교사는 필수적으로 올바른 목적과 시행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습의 제반요소와, 학생의 이해정도와 태도, 수행 능력 등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계발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얻게 될 유용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자체 또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이 후 에도 관련 영역을 계속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²⁸⁾

그러나 무엇보다 7차 교육과정 음악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통해 미적경험을 넓혀나감으로써 삶의 질을 풍부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 중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은 음악교육의 목표를 “음악적 감각의 향상을 도모하여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르고 음악을 생활화하며, 악곡과 연주의 특징 및 작품의 문화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심미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²⁹⁾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등학교 음악과 계발활동은 학교수업이 가지는 시간·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청소년들의 음악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흥미와 적성이 같은 집단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계발활동의 실제적 경험으로 통해 학생들은 음악적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할 뿐만 아니라 정서함양과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선행 연구 고찰

이전까지 음악관련 계발활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연구 범위를 소단위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계발활동 실태를 분석·연구하는 방향으로 행해졌다. 특히 강창열(2002)은 「음악교육연구」 학술연구논문에서 경기도 전역

28) Charles Leonhard,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pp.24-27.

29) 충청북도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 2003-5호 (2003), p.51.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 특별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분석하여 그 연구 범위가 다른 연구논문에 비하여 매우 넓게 행하여졌다.³⁰⁾ 그 밖에도 충북 청주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강릉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와 안양시, 울산광역시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연구의 경우 지역 내 학교 음악 관련 계발활동 지도교사와 학생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³¹⁾

대다수의 논문이 계발활동 실태를 분석하는데 주력한 것에 비해, 고희영(2002)은 ‘지역 내 인접학교간의 연합을 통한 음악분야 계발활동 활성화 방안’에서 현재의 계발활동이 그 중요성에 비해 비효율적인 계획과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을 파악하여, 새로운 계발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를 묶어서 음악교사의 전공과 희망에 따라 부서를 조직한다. ② 학생들은 자기의 적성에 맞는 부서가 설정된 학교에 가서 활동을 한다. ③ 전일제 계발활동이 운영상 바람직하다. ④ 음악교사의 지원이 못 미치는 부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다. ⑤ 음악 감상 분야는 지역의 문화원이나 전문 감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³²⁾

또한 노현경은 계발활동반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 월 별 주제가 있는 생활 속 음악 프로그램, 대중문화 및 영상매체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 전통음악과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4가지 구성으로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계발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³³⁾

30) 강창열, 전게서, pp.1-19.

31) 고은아, ‘중,고등학교 음악 교육의 실태와 창의성 신장 개선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여진, 전게서; 박금도, 전게서; 오세하, 전게서; 이인영, ‘중학교 음악과 특기·적성 교육 활동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운정, 전게서; 임남희, 전게서.

32) 고희영, 전게서.

33) 노현경, ‘중학교 특별(계발)활동의 다양화를 위한 음악반 프로그램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Ⅲ. 음악관련 계발 활동 실태 조사 분석

1. 조사 방법 및 도구

2009년 3월31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서울시 소재 중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지도하고 있는 음악관련 계발 활동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84부가 E-Mail과 직접방문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이 중 83부를 회수하여 29.2%의 회수율을 보였다.

[표 6] 조사 유형별 설문 응답비율

조사 유형	E-Mail	서울시교사합창단	직접 방문	총 부수
배부수	222	22	40	284
응답수	34	22	27	83
응답률	15.3%	100%	67.5%	29.2%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 중학교 음악교사 222명에게 E-mail을 보내 이 중 34개의 응답이 왔으며, 서울시 교사합창단을 방문하여 22부의 설문 응답을 받았다. 또,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40부의 설문 중 27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총 83부의 설문 응답을 받았다. 이 중 유의미한 설문 73부만을 연구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사용하여 비율통계를 내었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음악관련 계발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것으로 객관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선행 연구물³⁴⁾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부합하도록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이다. 연구문제에 따른 설문지의 내용요소는 [표 7]과 같다.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4) 고희영, 전게서; 전신애, 전게서.

[표 7] 연구문제별 설문지 내용요소

연구문제	내용요소	문항개수
① 음악관련 계발활동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 계발활동부서 종류	1
	▫ 계발활동 인원 조직	3
	▫ 계발활동 시간 편성	2
	▫ 교재, 교구 및 시설	2
	▫ 행사 운영	1
② 음악관련 계발활동 지도 교사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 교사 인적사항	3
	▫ 지도교사의 전문성	5
③ 음악관련 계발활동 지도상의 중점사항은 무엇인가?	▫ 계발활동 운영 중점사항	6
	▫ 학생 참여도	1
	▫ 계발활동 평가	2
④ 음악관련 계발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떠한가?	▫ 계발활동의 활성화 방안 및 의의	3

2. 자료 분석 및 결과

1) 조사대상 교사 및 계발 활동 반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질문지에 응답한 서울시 소재 중학교 음악관련 계발활동 담당교사 교사 73명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여자교사(75%)가 남자교사(25%)보다 3배 많은 수치를 보인다.

교직 경력에서는 25년 이하의 교직경력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20년 경력의 교사가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5년과 6-10년 경력의 교사가 각각 19%의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21-25년 경력의 교사가 17%, 11-15년 경력의 교사가 12%, 26년 이상의 교

사가 응답 교사의 6%를 차지하였다.

교사 전공영역은 일반음악대학을 졸업한 교사와 사범계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교사를 분류하였고, 일반대학을 졸업한 음악교사의 경우 다시 세부 전공별로 나누어 전공을 조사하였다. 사범계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교사와 일반대학 성악전공 교사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 밖에 작곡전공 22%, 피아노 전공 16%, 관현악전공 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악 전공 교사가 1%로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음악교육현장에서 국악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8] 조사대상 교사 인적 자료

구분		빈도수 (명)	백분율 (%)
성별	여자	55	75
	남자	18	25
계		73	100
교직 경력	16-20년	20	27
	1-5년	14	19
	6-10년	14	19
	21-25년	12	17
	11-15년	9	12
	26-30년	2	3
	30년 이상	2	3
계		73	100
전공	음악교육	19	26
	성악	19	26
	작곡	16	22
	피아노	12	16
	관현악	6	9
	국악	1	1
계		73	100

계발 활동반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국악영역으로 나누어 분포를 비교하였다. [표 9]

[표 9] 음악관련 계발 활동반 개설 현황

영역	명칭	개설반수 (개)	백분율 (%)
가창	합창반	17	23
	가창반	7	9.5
	아카펠라반	3	4
	보컬밴드반	1	1.5
	합계	28	38
기악	기악반	16	22
	밴드반	6	8
	관악합주반	3	4
	플루트반	2	2.5
	모듬북반	1	1.5
	오카리나반	1	1.5
	합계	29	39.5
감상	음악감상반	6	8
	영상음악감상반	1	1.5
	음악영상반	1	1.5
	음악심성수련반	1	1.5
	합계	9	12.5
국악	사물놀이반	5	7
	가야금반	1	1.5
	단소반	1	1.5
	합계	7	10
창작	해당사항 없음	0	0

가창영역에서 합창반, 가창반, 아카펠라반, 보컬밴드반 등으로 총 28개 반이, 기악영역에서 기악 합주반, 관악 합주반, 모듬북반, 플루트반, 오카리나

반, 밴드반 등으로 총 29개 반이 운영되고 있어, 계발활동반의 80% 가량이 가창과 기악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상 영역은 음악 감상반, 영상음악 감상반, 음악 영상반, 음악심성수련반으로 총 9개 반이 운영되며, 국악영역은 사물놀이반, 가야금반, 단소반의 총 7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창작영역의 경우,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어 영역별 편중 운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2) 음악 관련 계발활동 실태 조사 분석

음악 관련 계발활동 실태 조사 분석은 [표 7]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별 내용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영역을 구성하고, 각 하위 영역에 속하는 문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가. 음악 관련 계발활동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음악 관련 계발활동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계발활동부서 종류, 인원 조직, 시간 편성, 교재·교구 및 시설, 행사 운영 및 전반적 실태에 관련한 문항을 작성하였다. 총 문항 계수는 설문 기초자료 기입 문항을 포함하여 10개 문항이다. 이 중 계발활동부서 종류는 설문 기초자료로 구분하였으며, [표 9]에서 살펴 본 바 있다.

① 계발활동 인원 조직

먼저 현재 지도하고 있는 계발 활동반의 인원수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으며, 이것이 운영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또한 인원을 조직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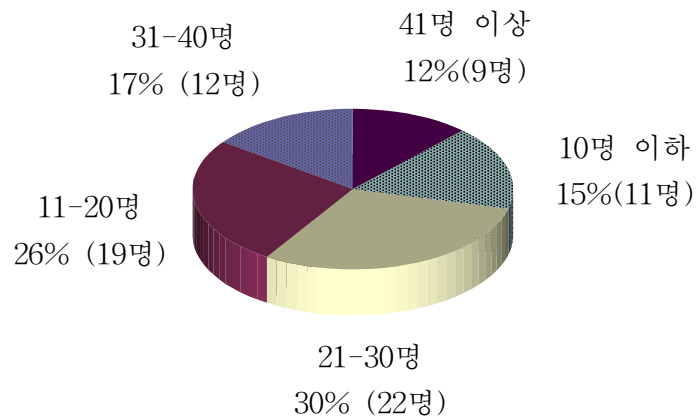
<문 1> 현재 선생님께서 맡고 계신 계발활동반의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계발활동반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를 물은 결과, 10명 이하 15%, 11-20명 26%, 21-30명 30%, 31-40명 17%, 41명 이상이 12%의 분포를 보였다.

[표 10] 현재 계발활동반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인원수

응답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10명 이하	11	15
② 11-20명	19	26
③ 21-30명	22	30
④ 31-40명	12	17
⑤ 41명 이상	9	12
계	73	100

[그림 1] 현재 계발활동반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인원수 분포



10-30명의 구성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여 이러한 학생인원이 계발활동을 구성함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10명 이하의

소규모 편성은 중창, · 중주와 같은 소규모 연주반에 많이 나타나며, 반대로 40명 이상의 편성은 감상영역의 계발활동반에서 많이 나타났다. 때때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40명 이상의 대규모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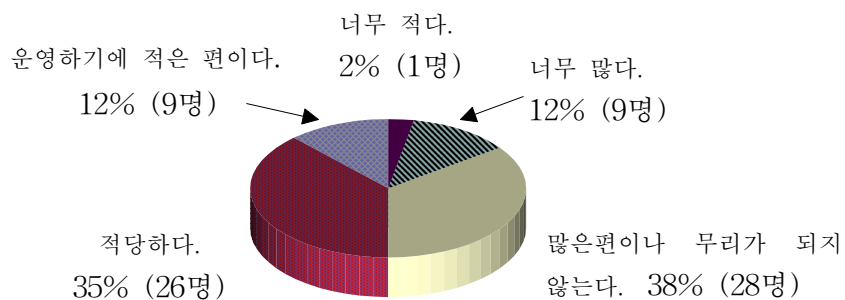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현재 인원수가 계발활동반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너무 많다’는 의견이 12%, ‘많은 편이나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8%, ‘적당하다’는 의견이 35%, ‘운영하기에 적은 편이다’라는 의견이 12%, ‘너무 적다’는 의견이 3%로 집계되었다.

<문 2> 귀 학교 계발 활동반의 인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11] 계발활동반 참여 인원수에 대한 지도교사 의견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너무 많다.	9	12
② 많은 편이나 무리가 되지 않는다.	28	38
③ 적당하다.	26	35
④ 운영하기에 적은 편이다.	9	12
⑤ 인원이 너무 적어 운영하기 어렵다.	1	3
계	73	100

[그림 2] 계발활동반 참여 인원수에 대한 지도교사 의견



질문에 답한 대다수의 교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발활동반의 인원이 ‘운영하기 적당하거나 혹은 많은 편이라도 운영상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라 답했다. 그러나 12%가 ‘운영하기 너무 많다’는 의견을 보여 음악과 활동 특성상 개인지도가 적용되어함에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반면, ‘운영하기에 적은 인원’이라 답한 12%는 학생들이 쉽고 흥미 있는 영역으로만 편중하려는 경향을 보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계발활동의 목적 중 하나가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점에서 적은 인원에서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고를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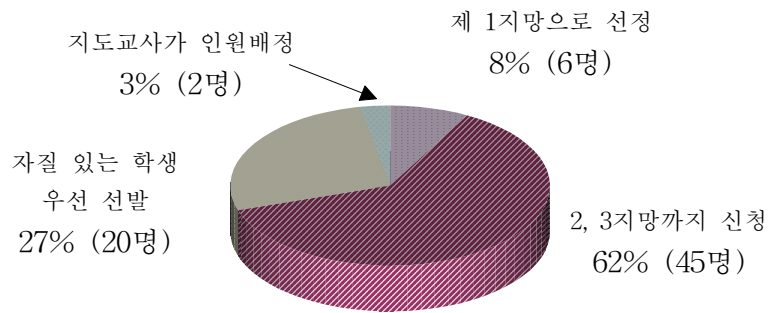
계발활동부서를 조직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하여 ‘제 1지망만으로 신청 받는다’는 비율이 8%,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제 2, 3지망까지 받는다’는 비율이 62%, ‘자질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는 비율이 27%, ‘지도교사가 인원수를 정한다’는 비율이 3%로 집계되었다.

<문 3> 계발활동 부서의 학생 인원 조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표 12] 계발활동 부서의 학생 인원 조직 방법

응답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제 1지망대로 신청을 받아 조직한다.	6	8
② 제 2, 3지망까지 받아 조정한다.	45	62
③ 자질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20	27
④ 지도 교사가 인원수를 정한다.	2	3
⑤ 기타	0	0
계	66	100

[그림 3] 계발활동 부서의 학생 인원 조직 방법



학생 인원 조직에 있어 학생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의견이 전체의 68%를 차지하여 학생의 의견을 무엇보다 존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질 있는 학생 우선 선발’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것과 대비되는 풍토이다. 자질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형식은 대부분이 연주회나 행사를 위한 활동으로 간주되던 과거 음악동아리에서 많이 나타나던 형태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많아짐은 학생들이 스스로 음악을 선택하여 취미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개념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계발활동 시간 편성

계발활동 시간 편성에 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편성 방침과 교사가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계발활동 편성 방침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계발활동 시간 편성에 관한 문항은 제 7차 교육과정 특별활동 교육과정 중 계발활동 운영방침에 따른 것이다.³⁵⁾ 특별활동 교육과정에서는 계발활동 시간을 학교실정에 맞추어 매 주 1시간씩 행하는 정일제와 2주에 한번 시행하는 격

³⁵⁾ 교육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pp.36-37.

주제, 한 달에 하루를 계발활동 날로 지정하는 전일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활동 시간을 확보할 것을 방침으로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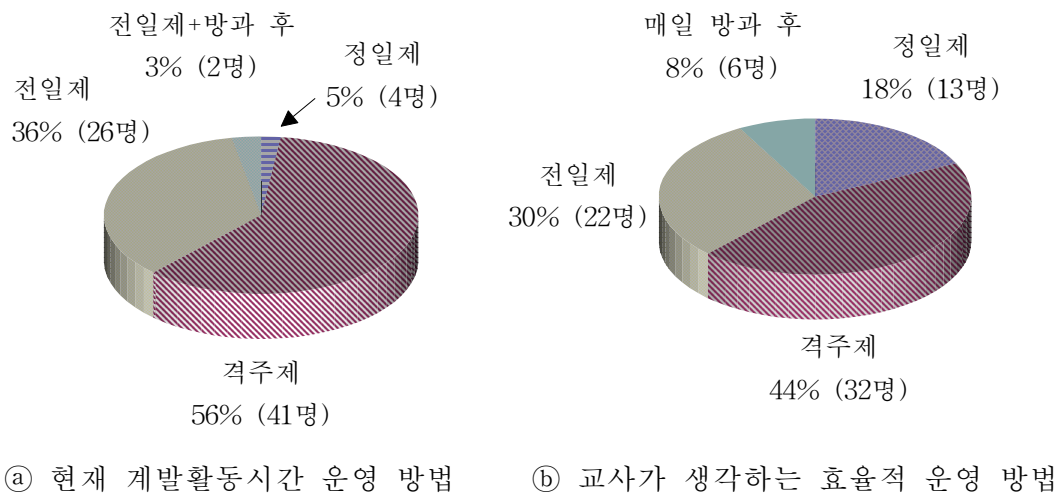
<문 4> 귀 학교에서는 음악 관련 계발 활동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문 5>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계발 활동 운영 방식은 무엇입니까?

[표 13] 현재 운영방법과 교사 의견 비교

응답내용	빈도 (명)		백분율 (%)	
	현재	교사 희망	현재	교사 희망
① 정일제	4	13	5	18
② 격주제	41	32	56	44
③ 전일제	26	22	36	30
④ 매일 방과 후	0	6	0	8
⑤ 전일제+방과 후	2	0	3	0
계	73	73	100	100

[그림 4] 현재 운영방법과 교사 의견 비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발활동 운영 방법은 격주제가 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일제가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일제가 5%, 전일제를 운영하면서 방과 후 활동을 겸한다는 의견이 3%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가 생각하는 계발활동 시간은 격주제가 44%로 집계되었으며, 전일제가 30%, 정일제가 18%, 매일 방과 후 활동이 8%로 집계 되었다.

실제 운영 상황과 교사의 의견 모두 격주제와 전일제를 선호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교사 의견에서 현재 운영 상황보다 격주제의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은, 격주제 특성상 시간 제약이 있어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현재 운영 방법에서는 집계되지 않았던 방과 후 활동이 교사 의견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음악활동은 규칙적인 연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틀 속에서 형식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실정에 대한 대안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교사의 의견을 현재 운영방법과 비교해 보자면, 미루어보아 현재보다 더 자주 활동을 갖는 양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격주제·전일제와 같은 방식은 충분한 음악적 능력을 쌓기에 무리가 되는 면이 있다. 제도적 측면을 떠나 학생들이 좀 더 음악적 연마를 할 수 있는 시간 배정이 필요하다.

③ 교재, 교구 및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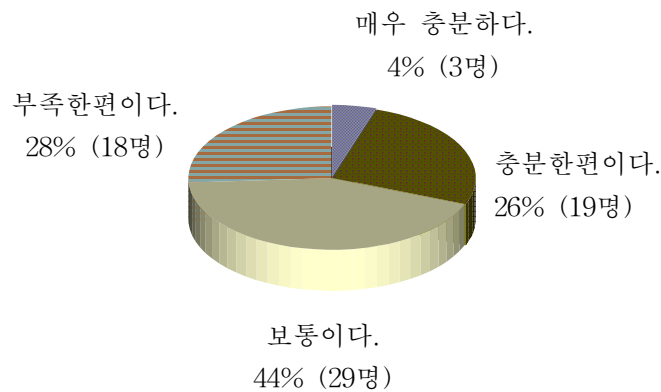
교재, 교구 및 시설에 관한 의견은 현재 계발활동을 위해 구비되어 있는 시설의 정도와 앞으로 계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시설에 관한 2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 6> 계발활동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시설의 준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표 14] 계발활동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시설의 준비도

응답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매우 충분하다.	4	5
② 충분한 편이다.	19	26
③ 보통이다.	31	43
④ 부족한 편이다.	19	26
⑤ 매우 부족하다.	0	0
계	73	100

[그림 5] 계발활동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시설의 준비도



교재, 교구 및 시설 준비도에 대하여 오분척도로 물은 결과 ‘매우 충분하다’ 4%, ‘충분한 편이다’ 26%, ‘보통이다’ 44%, ‘부족한 편이다’ 26%, ‘매우 부족하다’ 0%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로 답한 소극적 의견을 제외하면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이 거의 대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각 학교의 계발활동 지원 여건에 따라 교재, 교구 및 시설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실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져야 할 시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방음,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연습실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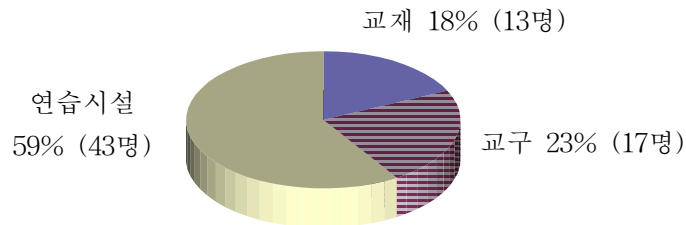
음악실이 62%로 집계되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악보·CD 등의 교재가 20%, 악기·오디오 등의 교구가 18%로 집계 되었다. 음악이 소리를 매개로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응답률이 나왔을 것이라 예상한다.

<문 7> 음악 관련 계발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시설 중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표 15]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져야 할 자료 및 시설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교재 (악보, 음악 감상용 CD 등)	13	18
② 교구 (악기, CD플레이어, 오디오 등)	17	23
③ 방음,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연습실	43	59
④ 기타	0	0
계	73	100

[그림 6]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져야 할 자료 및 시설



④ 행사 운영

계발활동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효율적 여가 선용과 생활화에 있다. 학교 음악교육의 목적 또한 학생들이 음악적 애호심을 갖고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음악

관련 계발활동이 학생들의 음악 체험을 얼마만큼 돕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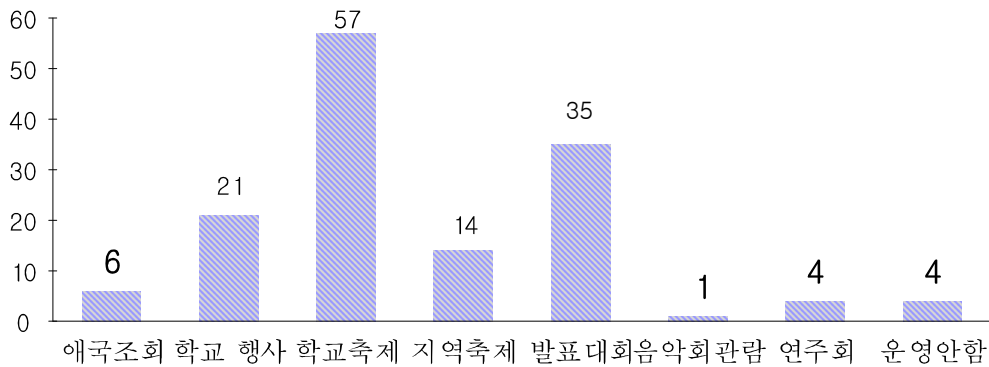
현재 계발활동반이 참여하고 있는 교내·외 행사에 관한 질문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표기한 행사는 애국조회, 입학식 등의 학교 행사, 학교 단위 축제, 지역 축제 행사, 학교 단위 발표대회이며, 설문을 진행하면서 기타 사항으로 음악회 관람과 계발활동반 자체 연주회가 집계되었다.

<문 22> 현재 계발활동반이 참여하고 있는 교내·외 행사를 모두 표기하여 주십시오.

[표 16] 계발활동반이 참여하고 있는 교내·외 행사

응답내용	빈도 (명)
① 애국조회	6
② 입학식 등 학교 행사	21
③ 학교 단위 축제	57
④ 지역 축제 행사	14
⑤ 학교 단위 발표대회	35
⑥ 기타(음악회 관람)	1
⑦ 기타(자체 연주회)	4
⑧ 해당 사항 없음	4

[그림 7] 계발활동반이 참여하고 있는 교내·외 행사 (단위 : 개 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발활동반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행사는 학교단위 축제로 73개 계발활동반 중 57개 반이 참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 내 발표대회 35개 반, 학교 행사 21개 반, 지역축제행사 14개 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집계되었던 애국조회는 현재 6개교밖에 조사되지 않았다. 한편 자체 연주회를 갖는 학교가 4개교가 조사되었으며, 계발활동시간 내에 관련 음악회를 관람하는 사례도 1곳이 있었다. 이전의 음악 관련 동아리 활동이 학교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점차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요하는 축제 중심의 행사운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변화라 하겠다.

그러나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각 학교마다 운영편차가 매우 커 활동 규모가 큰 계발활동반의 경우 3-4개 정도의 복수 응답을 한 반면, 운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계발활동반이 4개 반이나 조사 되었다. 이러한 활동규모는 계발활동반에 대한 학교 내의 지지도·예산편성·학생들의 관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계발활동반의 경우, 계발활동반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수 방법과 홍보가 필요하다.

나. 음악관련 계발 활동 지도교사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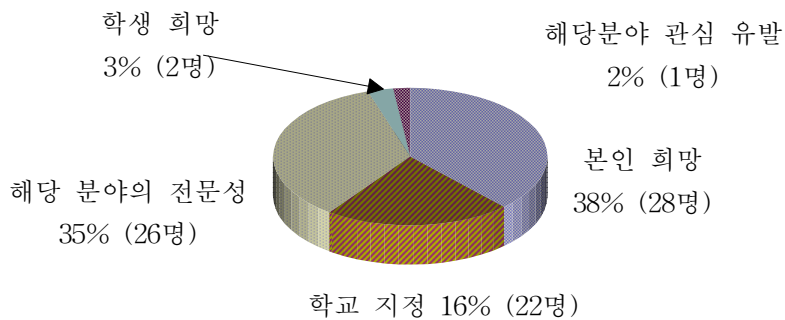
음악관련 계발 활동 지도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한 문항은 앞서 보여주었던 [표 8]의 조사대상 교사 인적 자료와 관련하여, 교사 스스로 자신이 맡고 있는 계발활동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평가해 위한 것이다. 5개의 질문 문항에는 지도 교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전문 외부 강사 초빙에 관한 의견이 포함되었다.

<문 8> 선생님께서 현재 계발활동반의 지도를 맡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³⁶⁾

[표 17] 계발활동반 지도를 맡게 된 동기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본인이 원해서	28	38
② 업무 조정 상 학교에서 지정해서	16	22
③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6	35
④ 학생들이 원해서	2	3
⑤ 기타 (해당분야-국악- 관심 유발을 위해)	1	2
계	73	100

[그림 8] 계발활동반 지도를 맡게 된 동기



³⁶⁾ 이 문항과 관련하여 일부 복수 응답이 제시 되었으나, 그 중 실제에 가장 가까운 1개 문항으로 응답을 좁혔음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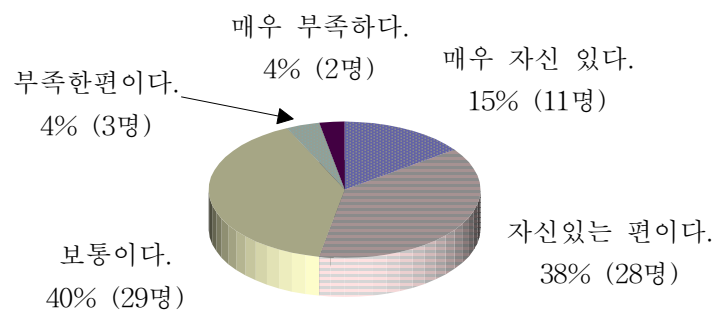
계발활동반 지도 동기에 대한 답변에서는 지도 교사들의 계발활동반에 대한 의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볼 수 있다. 38%의 교사가 ‘본인이 원해서’ 계발활동반을 맡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35%의 교사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맡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응답한 교사 모두가 음악 전공 교사임을 감안 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지도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다음 질문인 지도 능력과도 연계된다. 교사 스스로의 평가에서 매우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편이며, 이는 해당 분야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보인다.

<문 9> 현재 선생님의 계발활동 지도 능력은 어떠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표 18]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 자가 진단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매우 자신 있다.	11	15
② 자신 있는 편이다.	28	38
③ 보통이다.	29	40
④ 부족한 편이다.	3	4
⑤ 매우 부족하다.	2	3
계	73	100

[그림 9] 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 자가 진단



40%의 교사가 자신의 지도능력에 대해 ‘보통이다’라 답하였으나, 이는 스스로 평가에 대한 소극적 답으로 풀이된다. 반면, 교사의 지도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63%로 부정적 의견인 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 지도 교사 대부분이 스스로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도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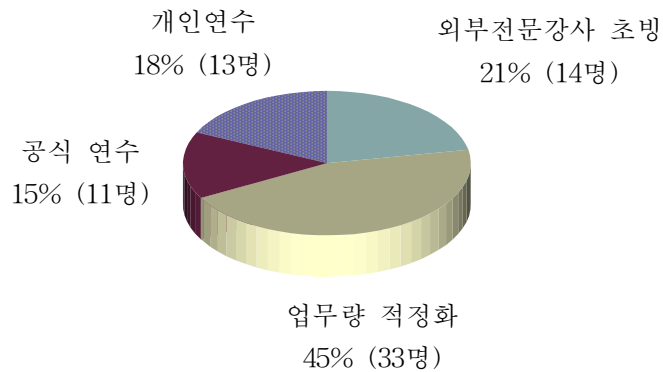
특별활동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많이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도 교사의 지도력 향상은 계발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문 10> 계발활동 지도 교사의 지도력 향상 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표 19] 계발활동 지도 교사의 지도력 향상 방안

응답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담당 교사의 개인 부담 연수기회 확대	13	18
② 학교 단위 공식 연수기회 확대	11	15
③ 과도한 업무 해소를 통한 계발활동 지도 집중	33	45
④ 외부 전문 강사 초빙	16	22
⑤ 기타	0	0
계	73	100

[그림 10] 계발활동 지도 교사의 지도력 향상 방안



지도 교사의 지도력 향상 방안으로 45%의 교사가 ‘과다한 업무의 해소를 통한 계발활동 지도에의 집중’을 꼽았다. 교사의 과다한 행정 업무에 관한 병폐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문제 중 하나이다. 교과수업을 준비함에 있어,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은 완벽한 수업을 준비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계발활동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교사들이 계발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에 행정 업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 교육 행정 인력이 확충되어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매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효율성 있는 지도력 향상 방안으로 꼽은 것은 외부 전문 강사 초빙에 관한 의견으로 21%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지도교사가 계발활동에 갖고 있는 부담감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교사 스스로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인 개인 연수기회와 학교단위 연수기회의 확대는 각각 18%와 15%로 나타났다.

최근 계발활동 및 방과 후 학교의 전문화·활성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 되고 있다. 이에 관한 의견은 앞서 살펴보았던 교사의 지도력 향상 방안에서도 나타났듯이 관련분야의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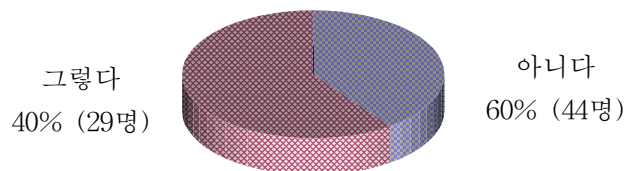
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 11> 현재 귀 담당 부서에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까?

[표 20] 계발활동반의 외부 전문 강사 초빙 여부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그렇다.	29	40
② 아니다.	44	60
계	73	100

[그림 11] 계발활동반의 외부 전문 강사 초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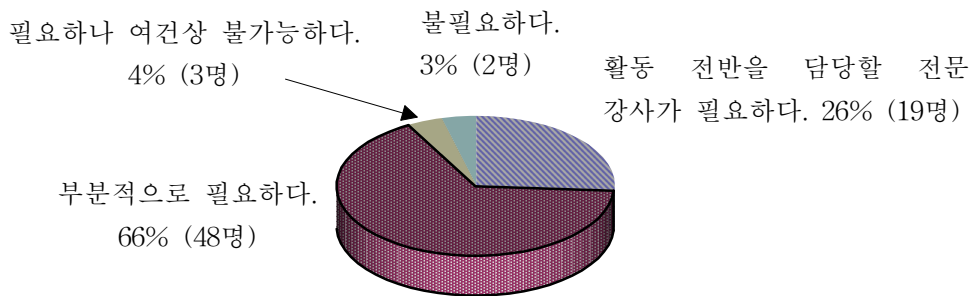
실제 계발활동에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의견의 40%로 집계되었다. 현재까지 외부 전문 강사가 학교 계발활동 지도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자리 잡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도 외부 전문 강사 초빙에 관한 지도 교사 의견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문 12> 계발 활동 부서에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21] 외부 전문 강사 초빙에 관한 지도 교사의 의견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활동 전반을 담당할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	19	26
②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48	66
③ 필요하나 학교 여건상 불가능하다.	3	4
④ 불필요하다.	3	4
⑤ 기타	0	0
계	73	100

[그림 12] 외부 전문 강사 초빙에 관한 지도 교사의 의견



전체 의견의 90% 이상이 외부 전문 강사 초빙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66%를 차지하였고, ‘계발활동 전반을 담당할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26%의 교사가 찬성하였다.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은 특히 기약반 지도교사에게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각 악기별 담당 교사로 하여금 좀 더 높은 수준의 개별 레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필요하나 학교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4%,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계발활동 지도 교사들이 외부 전문 강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 전문 강사 도입은 계발활동 수업 내용의 전문화·세분화를 가져와 학생들이 계발활동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음악은 교과목의 특성상 개별지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 강사 도입은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 계발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음악 관련 계발활동 지도교사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대다수 학교가 아직까지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 등과 같은 제도적 여건과 학교 측의 음악 관련 계발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 하겠다.

다. 음악관련 계발 활동 지도상의 중점사항은 무엇인가?

음악관련 계발 활동을 지도하면서 운영 중점사항에 관련된 문항은 개별지도를 포함한 전반적 운영 중점사항에 관한 6개 문항, 학생 참여도에 관한 1개 문항, 평가에 관한 2개 문항이다.

① 계발활동 운영 중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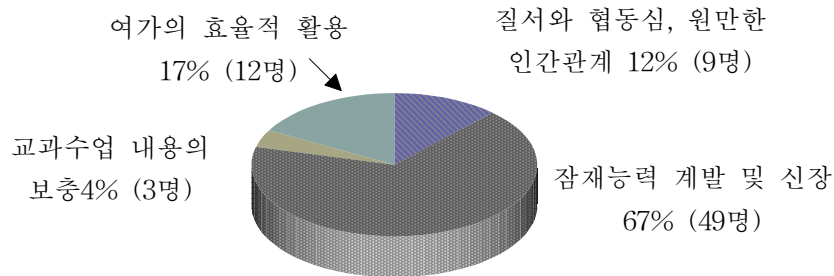
<문 13> 계발 활동을 지도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 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명시된 계발활동의 하위 목표들을 응답내용으로 하여 계발활동 지도 시의 중점 목표를 질문한 결과, ‘학생의 잠재능력의 계발 및 신장’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가의 활용 13%, 질서와 협동심, 원만한 인간관계 11%, 교과 수업 내용의 보충 3%로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계발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신체·정신적 발달의 측면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계발 활동 지도상의 목표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질서와 협동심, 원만한 인간관계	9	12
② 잠재능력의 계발 및 신장	49	67
③ 교과 수업 내용의 보충	3	4
④ 여가의 효율적 활용	12	17
⑤ 기타	0	0
계	73	100

[그림 13] 계발 활동 지도상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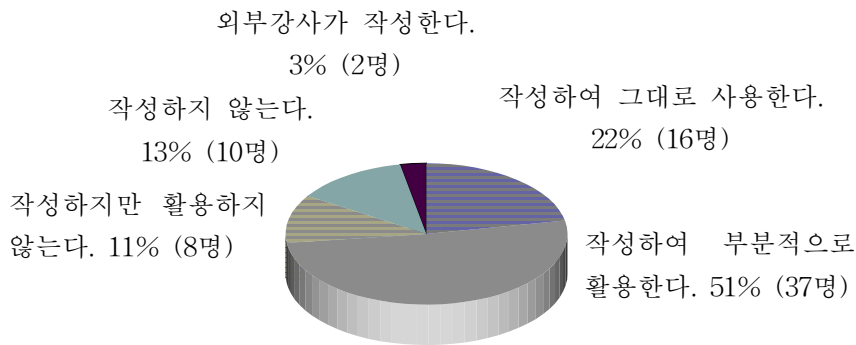


<문 14> 선생님께서는 계발 활동 지도를 위한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활용하십니까?

[표 23] 지도교사의 학습 지도안 작성 및 활용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작성하여 그대로 활용한다.	16	22
② 작성하여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37	51
③ 작성은 하지만 활용하지 않는다.	8	11
④ 작성하지 않는다.	10	13
⑤ 기타 (외부 강사가 작성)	2	3
계	73	100

[그림 14] 지도교사의 학습 지도안 작성 및 활용



교사의 학습지도안 활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답변 인원의 51%인 37명의 교사가 ‘지도안을 작성하여 부분적으로 활용한다’고 대답한 반면, ‘작성하여 그대로 활용한다’라 대답한 교사는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계발활동 또한 교과 수업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수업계획에 의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도안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작성은 하지만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1%, ‘작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3%로 집계되었다. 그 밖에도 ‘외부 전문 강사가 지도안을 작성한다’ 의견이 3% 나타났다.

계발활동을 지도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소정의 계획 및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무계획적으로 지도하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계발활동이 교과 수업과 함께 비중 있는 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계발활동 또한 목표에 맞는 체계적인 수업 계획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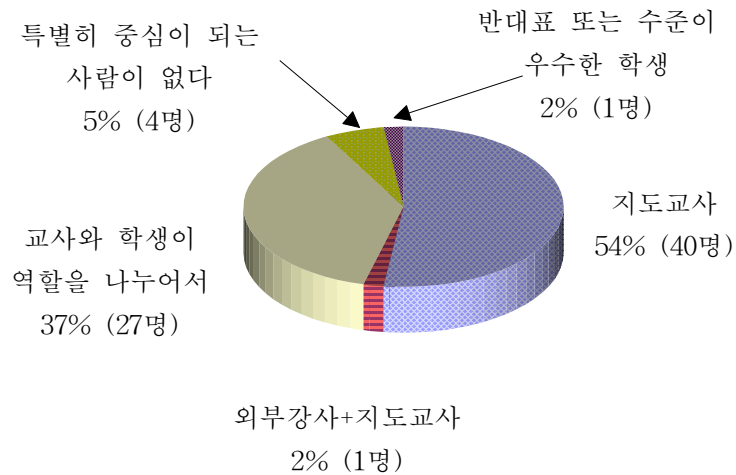
그렇다면 수업을 계획·진행함에 있어 교사와 학생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다음은 계발활동 계획을 짜거나 시간에서의 주체에 관한 질문이다.

<문 15> 계발 활동 계획을 짜거나 시간을 진행 할 때 누가 중심이 됩니까?

[표 24] 계발 활동 계획에서 교사와 학생의 비중

응답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지도교사	40	54
② 반대표 또는 수준이 우수한 학생	1	2
③ 교사와 학생이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서	27	37
④ 특별히 중심이 되는 사람이 없다.	4	5
⑤ 기타(외부강사+ 지도교사)	1	2
계	73	100

[그림 15] 계발 활동 계획에서 교사와 학생의 비중



살펴보면, 지도교사가 중심이 된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사와 학생이 역할을 나누어서’가 37%, ‘특별히 중심이 되는 사람이 없다’가 5%, ‘반대표 또는 수준이 우수한 학생’·‘외부강사와 지도교사가 역할을 나누어서’가 각각 2%로 집계되었다. 계발활동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생 중심 운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교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교사와 학생의 역할 분담이

지배적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비추어 볼 때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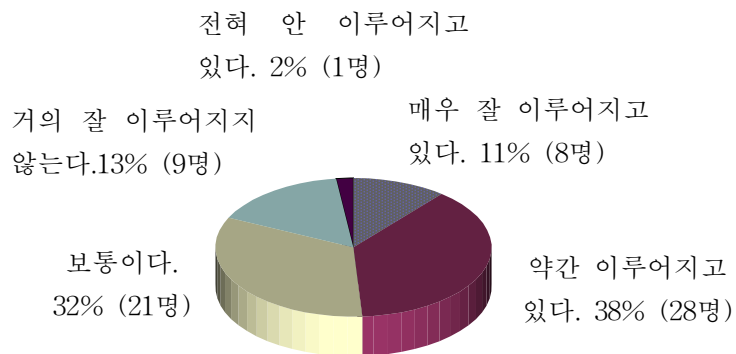
계발활동의 근본 목적이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 계발 및 신장’에 있다고 볼 때, 계발활동 시간에 각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지도가 이뤄져야 함은 필수 요건일 것이다. 다음의 두 개 문항은 수준별 개별지도에 관한 물음이다.

<문 16> 계발 활동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따른 개별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표 25] 학생 수준에 따른 개별지도 여부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8	11
②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28	38
③ 보통이다.	24	33
④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12	16
⑤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1	2
계	73	100

[그림 16] 학생 수준에 따른 개별지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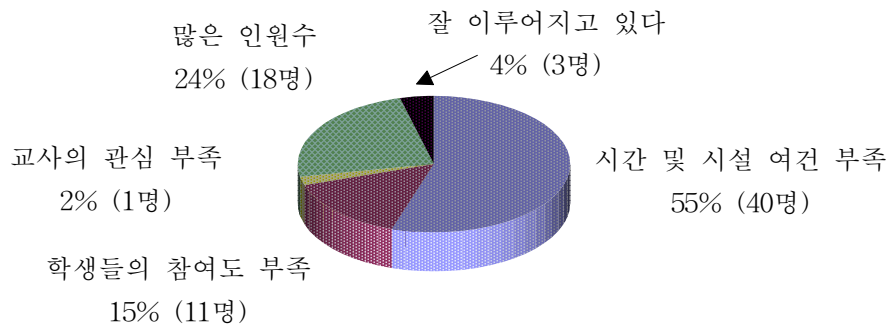
학생 수준별 개별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로 38%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다'로 32%,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9%,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1%,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2%로 기록되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 평가라는 점을 감안 할 때, 현실보다 조금 높은 수치의 응답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교 계발활동 현장에서 학생 수준별 개별지도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음악 관련 계발활동은 실기와 실습 위주의 활동임을 감안할 때 개별지도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 17>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26]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시간 및 시설 여건 부족	40	55
② 학생들의 참여도 부족	11	15
③ 교사의 관심 부족	1	2
④ 많은 인원수	18	24
⑤ 기타 (잘 이루어지고 있음)	3	4
계	73	100

[그림 17]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개별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55%가 ‘시간 및 시설 여건의 부족’을 들었다. 다음으로 응답이 높은 문항은 24%를 차지한 ‘많은 인원수’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두 문항 모두 계발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계발활동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의 응답이다. 개별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교사 15%가 학생 참여도 부족을 들었다. 계발활동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활동 주체인 학생들의 소극적 참여는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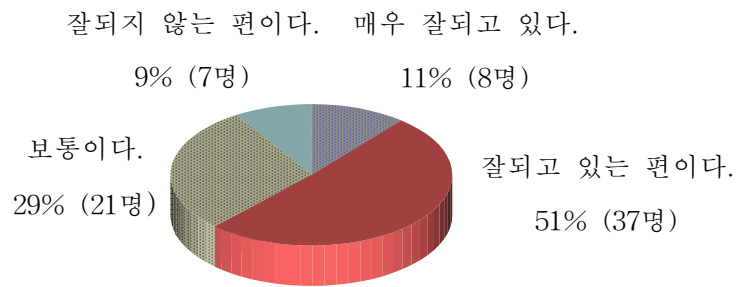
다음으로 살펴 볼 전반적 실태는 계발활동 수업 내용을 포함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던 인원조직, 운영시간, 교재·교구 및 시설, 행사참여, 개별 지도 등 계발활동의 전반적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포괄적 질문이다.

<문 23> 담당하시는 음악 관련 계발 활동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평가해 주십시오.

[표 27] 음악 관련 계발 활동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매우 잘되고 있다.	8	11
② 잘되고 있는 편이다.	37	51
③ 보통이다.	21	29
④ 잘되지 않는 편이다.	7	9
⑤ 전혀 안 되고 있다.	0	0
계	73	100

[그림 18] 음악 관련 계발 활동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



교사가 현재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계발활동 운영 상태에 대하여 교사가 자체 진단을 해보도록 하였다. 계발활동 운영측면에 관한 교사 자체 진단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잘되고 있는 편이다’가 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보통이다’ 29%, ‘잘 되지 않는 편이다’ 9%, ‘매우 잘되고 있다’ 11%, ‘전혀 안되고 있다’ 0%로 집계 되었다. 이와 같은 긍정적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에서 비추어보았던 지도 교사가 계발활동에 갖는 자신감과도 결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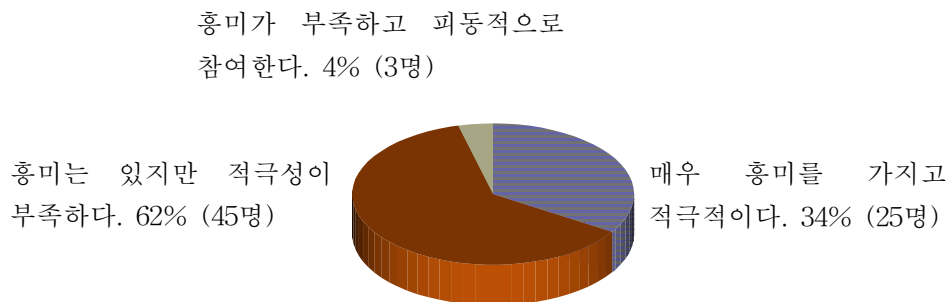
② 학생 참여도

<문 18> 담당하시는 계발 활동반 학생들의 참여 태도는 어떠합니까?

[표 28] 계발활동반 학생들의 참여 태도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매우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이다.	25	34
② 흥미는 있지만 적극성이 부족하다.	45	62
③ 흥미가 부족하고 피동적으로 참여한다.	3	4
④ 전혀 흥미가 없다.	0	0
⑤ 기타	0	0
계	66	100

[그림 19] 계발활동반 학생들의 참여 태도



학생들의 참여도에 관하여 무려 62%의 교사가 ‘흥미는 있지만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흥미가 부족하고 피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의견도 4% 나타났다. ‘매우 흥미를 갖고 적극적이다’라는 의견은 34%에 불과했다. 계발활동이 학생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③ 계발활동 평가

제 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얼마만큼 계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면적인 수시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³⁷⁾

본 영역에서는 지도 교사가 학생들의 계발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의 교육과정 방침에 적합한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이 계발활동을 평가 하면서 갖는 실제적 어려움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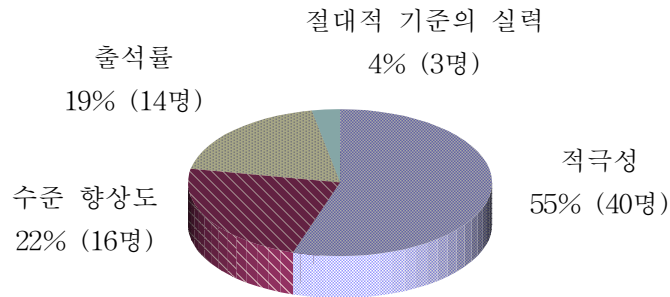
<문 20> 계발 활동 평가 시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무엇입니까?

[표 29] 계발 활동 평가 중점사항

응답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적극성	40	55
② 수준 향상도	16	22
③ 출석률	14	19
④ 절대적 기준의 실력	3	4
⑤ 기타	0	0
계	73	100

37) 교육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p.38

[그림 20] 계발활동 평가 중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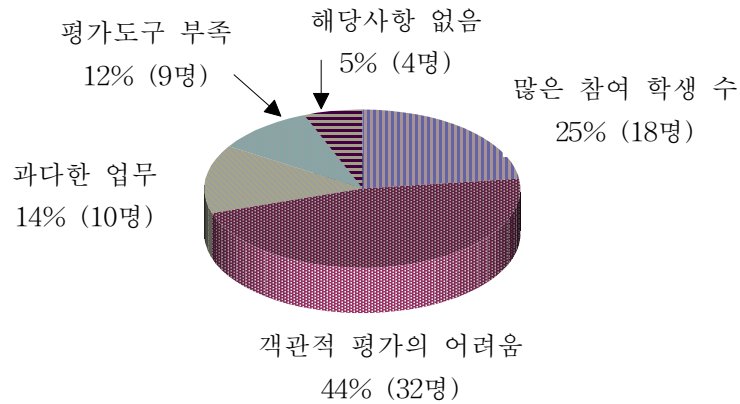
계발활동을 평가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학생들의 적극성’으로 전체 의견 중 55%의 교사가 이 문항에 답을 하였다. 다음은 수준 향상도로 22%의 응답을 보였으며, 출석률 19%, 절대적 기준의 실력 4%로 나타났다. 이는 현 교육과정 계발활동의 근본취지인 학생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잠재능력 계발의 측면과 과정에 의한 평가 모두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다음은 교사들이 계발활동을 평가를 하면서 갖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응답이다.

<문 21> 계발 활동 평가 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0] 계발 활동 평가 상 문제점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많은 참여 학생 수	18	25
②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32	44
③ 과도한 업무	10	14
④ 평가도구 부족	9	12
⑤ 기타 (해당사항 없음)	4	5
계	73	100

[그림 21] 계발활동 평가 상 문제점



대다수 교사들이 평가를 하면서 갖게 되는 문제점으로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44%)’을 꼽았다. 계발활동이라는 분야의 성격 상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대다수 교사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평가도구의 부족(12%)’과도 연관이 깊다. 평가 방침에는 여러 평가도구가 제시되어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한 서술형 평가를 내리는 것은 교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많은 참여 학생 수(25%)’와 ‘과다한 업무(14%)’는 교사 외적 환경에 관한 문제로 앞서 계발활동 계획과 운영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언급된 바 있다. 계발활동시간과 인원수, 교사의 업무량 등 교육 환경 개선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라. 음악 관련 계발활동에 대한 인식정도는 어떠한가?

음악 관련 계발활동의 인식 정도와 관련한 문항은 총 3개 문항으로, 계발활동을 통한 학생 자아실현의 기여도, 교사가 생각하는 계발활동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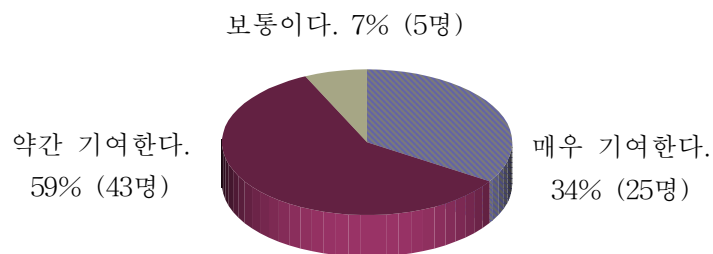
방안 및 의의에 관한 의견이다. 지도 교사가 계발활동의 근본취지와 그 의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더불어 앞으로 계발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짚어 보았다.

<문 19> 음악과 계발활동이 참여 학생의 자아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표 31] 계발활동을 통한 학생 자아실현의 기여도

응답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매우 기여한다.	25	34
② 약간 기여한다.	43	59
③ 보통이다.	5	7
④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0	0
⑤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0	0
계	73	100

[그림 22] 계발활동을 통한 학생 자아실현의 기여도



계발활동이 학생의 자아실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59%의 교사가 ‘약간 기여한다’로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매우 기여한다’ 34%, ‘보통이다’ 7%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0%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수의 교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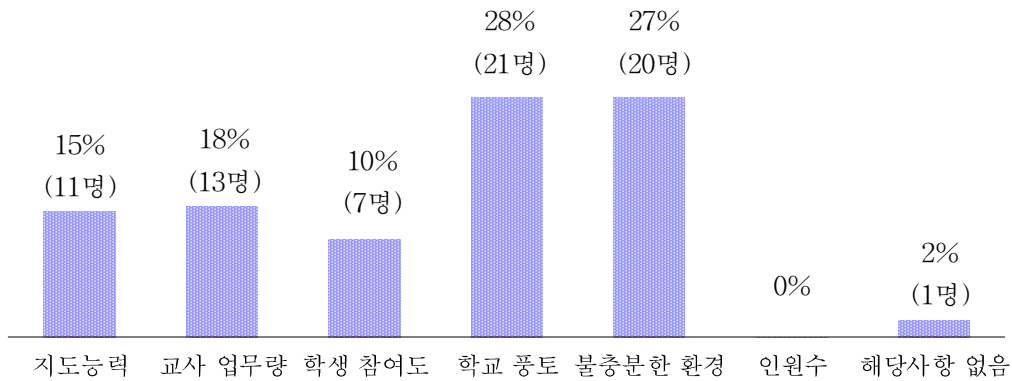
이 대체로 계발활동이 학생의 자아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24> 음악 관련 계발활동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2] 음악 관련 계발활동반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응답 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교사의 지도능력	11	15
② 교사의 업무량	13	18
③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	7	10
④ 진학위주 학교 교육 풍토	21	28
⑤ 불충분한 환경 (시설, 자료, 시간, 재정 등)	20	27
⑥ 부서 당 인원수	0	0
⑦ 기타 (해당사항 없음)	1	2
계	73	100

[그림 23] 음악 관련 계발활동반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음악 관련 계발활동반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진학위주의 학교 풍토’가 2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불충분한 환경’이 27%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사의 업무량’이 18%, ‘교사의 지도 능력’이 15%,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가 10%, ‘해당사항 없음’ 2%를 기록하였다. 앞서 계발활동 진행·평가 상의 문제점으로 많은 참여 학생 수가 꼽혔으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응답률이 0을 기록한 것은 특이할만한 사항이다.

계발활동이 교과학습에서 간과하기 쉬운 도덕·정서적 문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학교 풍토는 계발활동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여건이 학생들이 자기 계발을 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계발활동이 교과 수업과 더불어 학교 교육의 중요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식의 개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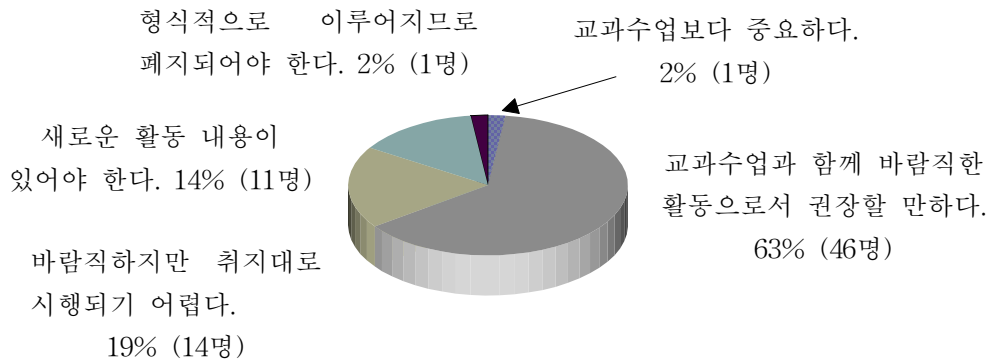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교과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 7차 교육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단계에서 교사들은 과연 계발활동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계발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활동에 대해 가지는 의의는 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 될 것이다.

<문 25>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계발 활동의 의의는 어떠한 것이라 보십니까?

[표 33] 계발활동의 의의

응답내용	빈도 (명)	백분율 (%)
① 교과 수업보다 중요하다.	1	2
② 교과 수업과 함께 바람직한 활동으로서 권장할 만하다.	46	63
③ 바람직하지만 그 취지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14	19
④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활동 내용이 있어야 한다.	11	14
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1	2
계	73	100

[그림 24] 계발활동의 의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계발활동을 ‘교과 수업과 함께 권장 할만하다(63%)’고 여기고 있으며, 그 외 ‘바람직하지만 취지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19%, ‘새로운 내용이 요구된다.’ 14%, ‘교과 수업보다 중요하다’ 2%, ‘폐지되어야 한다.’ 2%로 조사되었다. 즉, 대부분의 교사들은 계발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시행중인 음악 관련 계발활동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해당 분야 계발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현재 음악 관련 계발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음악교사 73명이 응답한 「음악 관련 계발활동 실태 조사」 설문지를 통계·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계발활동이 교과수업과 더불어 비중 있는 활동으로 다루어지기 위해 개선해야 할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음악관련 계발활동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계발활동반의 종류, 인원, 운영방법, 교재·교구 및 시설 조건, 참여행사에 관한 의견에서 대부분의 교사는 형식적 운영방법과 이에 따른 시설 확충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계발활동반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국악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한 결과 가창 39개 반, 기악 25개 반, 감상 9개 반, 국악 6개 반, 창작 0개 반으로 나타나 영역별 편중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시간 운영에 있어 격주제와 전일제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규칙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음악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과 후 활동과 같은 형식적 제약이 없는 활동을 권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교재, 교구 및 시설 조건은 각 학교의 계발활동 지원 여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시급하게 갖춰져야 할 계발활동 시설로 방음,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연습실 또는 음악실을 들고 있다.

운영실태 및 시설조건과 관련한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현 교육과정에서 계발활동의 비중을 크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계발활동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음악적 생활화에 초점을 두고 제시한 교내·외 참여 행사에 대한 응답에

서 선행연구와 많이 다른 응답이 나타났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음악 동아리만이 학교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학교단위축제와 발표대회에 참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나, 계발활동이 학생들의 음악적 생활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교사와 학생의 응답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지도교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교사의 지도 능력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을 유도하였다. 지도교사의 지도 동기와 지도 능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애착을 보였다. 이는 계발활동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교사 자체 진단 결과에서도 교사 대부분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계발활동반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도교사 전체 의견의 90% 이상이 외부 전문 강사 초빙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외부 전문 강사의 도입이 계발활동 지도의 전문성 확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은 계발활동을 지도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교사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정적 시각은 계발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교과 및 학생 생활 지도에 있어서도 수차례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따라서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에 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음악 관련 계발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중점사항과 평가관점 대하여 물은 결과 계발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교사들이 계발활동을 지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으로 ‘학생의 잠재능력 계발 및 신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의 적극성’과 ‘수준 향상도’를 평가 중점 사항으로 보는 관점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러나 계발활동 운영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

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소정의 계획 및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무계획적으로 지도하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수업을 계획·진행함에 있어 대체적으로 교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적극성이 부족하여 활동을 원만히 이끌어 나가는데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음악과 계발활동의 특성상 개별지도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계발활동 프로그램의 질적인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학생들의 성향이 이전과 매우 달라졌음에도 계발활동반은 고전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계발활동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위한 교사 직무연수가 요구된다.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를 계발활동반 설계와 운영에 참가시켜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영역과 운영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계발활동이 학생들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교사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교과 학습과 더불어 권장할 만한 활동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계발활동이 근본적 목적을 완전히 이루지 못함은, 학교 교육을 점령해 버린 입시 위주의 풍토와 이러한 풍토에 잠식당한 나머지 계발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적 요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악 관련 계발활동의 효과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내 학교 간 연계 운영을 실시한다.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는 각 학교당 2-3명의 음악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타 과목에 비하여 전공 교사수가 월등히 적을 뿐만 아니라, 음악 교과의 경우 세부 전공에 따라 그 전문영역이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지역 내 인근 학교 간 연계 운영을 하여 각 전공 교사별로 부서를 조직·운영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꾀할 수다. 연계 운영은 또한 학교 내에서 부족했던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계발활동을 선택하는데 더 다양한 영역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전문 강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외부 전문 강사 도입에 관한 설문 응답에서 90%이상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다. 전문 강사 제도는 교과수업과 행정 업무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계발활동 수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설문에서 가창·기악 영역에 비하여 감상·창작·국악영역의 계발활동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난 것은 학생의 흥미를 끌기에 그 내용이 너무 어렵고, 교사가 수업을 구성하기에 전문성을 지니지 못함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역에서 전문 강사의 도입은 여러 영역에서 흥미 있는 활동을 구성하기에 효과적일 것이다. 컴퓨터 음악을 전공한 전문 강사가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전문국악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그 예일 것이다. 더불어 계발활동반을 운영하는 교사를 위한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계발활동반 외의 담당 업무를 경감시켜 주어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방과 후 학교를 통gks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다수 교사들이 계발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효과적이지 못한 시간 활용을 들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격주제 혹은 전일제로 계발활동을 하고 있으나, 음악교과가 끊임없는 실기 연마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기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시간 외 방과 후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탄력적인 시간 운영방법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계발활동 영역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겠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홍보 등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한다. 또한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충분한 개별지도와 협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 시설을 적절히 활용한다. 시간운영과 더불어 개선될 점으로 지적된 시설환경면은 지역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지역 문화시설의 전문 감상시설 및 연주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교 내에 불충분한 여건을 보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지역 시설을 통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음악적 생활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대안은 음악 관련 계발활동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개선이다. 현재 학교 현장의 계발활동이 그 취지와 다르게 진취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계발활동이 형식적 활동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학교 풍토의 문제가 크다.

학교교육의 본래 목표가 전인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을 계발하는 데 있는 한, 학생의 정서적 순화를 돕고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교과영역에서 그 비중이 점차 작아지고 있는 음악 과목의 경우, 교과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는 계발활동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앞서 제시한 효율적 방안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와 교육 행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모두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분명 학생들의 자아실현에 바람직한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 논문을 토대로 앞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음악 관련 계발활동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부(1997),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교육부(199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총론, 특별활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 교육부(1997), 특별활동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별책18호]
- 교육부(2000), 중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해설, 2000
- 교육부(2001),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특별활동: 계발활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권덕원 외(2005),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 박은정 외(2004), 초.중등교육법령 및 고등교육법령 개편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은종(2008),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실행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1988), 인간교육의 발전적 탐색, 동원문화사
- 성경희(1986), 학교 음악교육 내실화 방안탐색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광우(2005), 특별활동 교육과정 개정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Charles Leonhard(2003), 안미자 역,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한국교원대학교(2002), 고등학교 특별활동 : 계발활동
- 함종규(1989), 인간형성을 위한 특별활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학위논문

- 고은아(1998), 중,고등학교 음악 교육의 실태와 창의성 신장 개선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혜영(2002), 지역 내 인접학교간의 연합을 통한 음악분야 계발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김여진(2008), 초등학교 계발 활동에서 음악활동에 관한 실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노현경(2004), 중학교 특별(계발)활동의 다양화를 위한 음악반 프로그램 구안,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금도(2008), 음악특기적성 교육의 실태와 운영에 관한 연구 : 강릉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관동대학교대학원

오세하(2000), 고등학교 클럽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울산광역시 인문계·실업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상희(2000), 중학교 기악 클럽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윤정(2000), 음악과와 관련된 클럽활동의 운영 실태 연구 : 대전광역시 중학교의 클럽활동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대학원

이인영(2007), 중학교 음악과 특기·적성 교육 활동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 부천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임남희(2006), 음악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조사 연구 : 춘천시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대학원

전신애(2004), 음악관련 계발활동의 실태조사 연구: 청주시 소재 중학교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술지 논문

강창열, '경기도 초등학교 음악 교육의 실태', 「음악교육연구」 Vol.23 No.1, 한국음악교육학회, 2002, pp.1-19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 of Musical Club Activities -focused on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Kim, ji eu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Professor : Oh, ji hyang)

This thesis suggests a revitalization of club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means to improve students' physical and mental ability, which is often neglected by the textbook-based education. Prior to the suggestion of a scheme to revitalize club activities, the conditions of the musical club activities enforced in the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will be researched and analyzed, and the problems of the actual operation will be pointed out.

A questionnaire has been made based on four issues: the actual condition of musical club activities, the expertise of teachers, the central matters considered in the actual education, and the teachers' understanding about the musical club activities. The respondents were 73 teachers of Seoul who majored in music and are actually participating in musical club activities.

The result shows that most of the teachers precisely understand the meaning and the goal of club activities, and have confidence and positiveness about the club activities they undertake. The teachers'

expressed the opinion that it is difficult to operate the club activities according to the original purpose due to the lack of time, environment such as equipment and teaching aids, the allotment of teacher's duty, and low participation of the students.

In order to better the situation and organize more effective club activities, I suggested the cooperation of neighboring schools, organizing a system of hiring professional instructors, autonomous operation through after-school programs, and making use of local facilities. However, most urgent problem is raising the consciousness about this issue. Because current school education is placing too much importance o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club activities are operated only formally, and this situation is the foremost problem to be improved.

For club activities to settle as a school activity important as textbook learning, it is necessary that various studies seeking effective operation of club activities in music and other subjects are made, and as a result, club activities follow the original purpose of serving to improve physical and mental ability of students. Through this thesis, I expect that more studies on related subjects will increase, and above all, the scheme of revitalization applicable to actual school education will be provided. In addition, for the studies of this sort to actually happen, it is effort of active teache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ors are given to the researchers.

[부 록]

설 문 지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연구 주제인 「음악 관련 계발 활동 실태 분석 연구」의 기초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문항은 총 25개 문항으로 모두 객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설문의 답변 내용은 연구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지 은

1. 성별: 남(), 여()
2. 교육경력: ()년
3. 전공 분야:()전공
4. 지도하는 계발활동 부서: ()반

* 다음 각 질문에 대하여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그 번호를 표기해 주십시오.

1. 현재 선생님께서 맡고 계신 계발 활동반의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 ① 10명 이하 ② 10-20명 ③ 20-30명
④ 30-40명 ⑤ 40명 이상

2. 귀 학교 계발 활동 반의 인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⑤ 기타()

15. 계발 활동 계획을 짜거나 시간을 진행 할 때 누가 중심이 됩니까?

- ① 지도 교사
- ② 반대표 또는 수준이 우수한 학생
- ③ 교사와 학생이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서
- ④ 특별히 중심이 되는 사람이 없다.

⑤ 기타()

16. 계발 활동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따른 개별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 ②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⑤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17.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간 및 시설여건 부족
- ② 학생들의 참여도 부족
- ③ 교사의 관심부족
- ④ 많은 인원수
- ⑤ 기타()

18. 담당하시는 계발 활동 반 학생들의 참여 태도는 어떠합니까? ()

- ① 매우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이다.
- ② 흥미는 있지만 적극성이 부족하다.
- ③ 흥미가 부족하고 피동적으로 참여한다.
- ④ 전혀 흥미가 없다.

⑤ 기타()

19. 음악과 계발활동이 참여 학생의 자아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기여한다. ② 약간 기여한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⑤ 기여하지 않는다.

20. 계발활동 평가 시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적극성 ② 수준 향상도 ③ 출석률
④ 절대적 기준의 실력 ⑤ 기타()

21. 계발활동 평가 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참여 학생 수 ②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③ 과도한 업무 ④ 평가도구 부족
⑤ 기타()

22. 현재 계발활동반이 참여하고 있는 교내·외 행사를 모두 표기하여 주십시오.

- ① 애국조회 ② 입학식 등 학교행사
③ 학교단위 축제 ④ 지역축제 행사
⑤ 학교단위 발표대회 ⑥ 기타()

23. 담당하시는 음악관련 계발활동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평가해 주십시오.

- ① 매우 잘되고 있다. ② 잘되고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되지 않는 편이다.

